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95 호

2024년 10월 16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0 월호 요약
2. 2024 UNGC Korea Leaders Summit 안내(11/5)
3. UNGC 와 함께하는 플로깅 봉사데이 모집(~11/8)
4.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I 참여 기업 모집 안내(~12/20)
5.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3 차 미팅 결과(10/11)
6.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결과(10/2)
7. 2024 하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 결과(9/27)

■ 본부 소식

1. 글로벌 식량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업 활동 가속화
2. 해운 산업 선도 기업들의 공동성명 발표
3. 2024 UNGC 리더스 서밋,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긴급한 행동의 필요성 강조
4. 지구의 3 중 위기 해결을 위한 플랑크톤 선언문 발표
5. 지속가능성을 위한 CMO 의 역할 강조

6. '지속가능금융의 혁신 가속화' 보고서 발간
7. SDG 가속화를 위한 민간부문 공동행동 촉진
8. 강력하고 포용적인 다자주의를 향한 글로벌 기업 성명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삼성전자

■ UNGC & 회원사 뉴스

1. 미니쉬테크놀로지, 의료테크 첫 UNGC 가입...ESG 경영 시동
2. 포스코인터내셔널, 국제기구와 손잡고 멸종위기종 저어새 보호 나서
3. 바닥에 쪼그려 앉아 컵라면 먹는 소방관 없게...현대차가 수억 원짜리 버스 소방서에 기증한 이유
4. 새마을금고, 임원 선임 투명성 강화...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 제한
5. "인천공항 인권은 00다"... 인권경영 확산 챌린지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0 월호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OLUME 49 | October 2024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 목 차 ■

1. SBTi 보고서: 기업의 가치사슬과 글로벌 기후목표의 부합성
(Aligning Corporate Value Chains to Global Climate Goals)
2. 전문가 인사이트 :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망 탈탄소화
3. ESG 최신 동향
 -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및 경제적 효익 달성
 - ESG 등급 통찰: EU 녹색분류체계 적합성(Alignment)
4.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5.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이번 먼슬리 인사이트는 SBTi가 발간한 '기업의 가치사슬과 글로벌 기후목표의 부합성' 보고서를 통해 SBTi Scope 3 목표설정 및 도전과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그와 함께 기업의 공급망 내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기업의 공급망 탈탄소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SBTi 보고서: 기업의 가치사슬과 글로벌 기후목표의 부합성 (Aligning Corporate Value Chains to Global Climate Goals)

SBTi는 2021년 10월에 처음 발표한 기업 넷제로 표준(Corporate Net-Zero Standard)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간과정에서 SBTi는 Scope 3 목표설정 프레임워크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기업의 가치사슬과 글로벌 기후목표의 부합성(Aligning Corporate Value Chains to Global Climate Goals)>이란 보고서를 7월 30일 발행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Scope 3 목표설정에 대한 제한사항을 파악하고, SBTi가 현재 넷제로 표준 개정 과정에서 탐구 중인 초기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연구 목적으로만 발간되었으며, 향후 발표될 개정안 초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세부 목차

1. SBTi Scope 3 목표설정 개요
2. Scope 3의 도전과제
3. Scope 3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4. 앞으로의 계획
5. 기업 넷제로 표준(Corporate Net-Zero Standard) V2.0 타임라인

본문에서는 ▲Scope 3 목표설정에 대한 도전과제와 한계, ▲Scope 3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 ▲SBTi 표준 개발을 위한 추후 계획을 알아봅니다. 결과지표(outcome metric)의 활용 및 목표경계 설정 시의 우선순위 기준, 기업의 영향력에 따른 배출원 우선순위 지정을 통해 기업의 Scope 3 공시를 돕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Scope 3 배출량이 전체 탄소배출량의 96%를 차지하며, 주로 ▲구입한 제품에 포함된 업스트림과 판매된 제품사용으로 인한 다운스트림에서의 전력사용, ▲반도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플라스틱을 포함한 주요 자본재 조달과정, ▲운송, 출퇴근, 물류 및 구매제품에 구현된 연료사용 등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Scope 3의 배출량감축 없이는 탄소중립이라는 전지구적 기후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사실에 동감하며, 2030년까지 주요 공급업체에 100%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사용을 촉구했습니다. 본 전문가 인사이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공급망 내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기업의 공급망 탈탄소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리즈 컴리 (Liz Comley)

| 마이크로소프트 지속가능성 그룹 매니저
(Sustainability Group Manager Microsoft)



헤일리 알리시 (Haley Alesi)

| 마이크로소프트 지속가능성 수석 매니저
(Senior Sustainability Manager Microsoft)



라일라 모레티 (Laila Moretti)

| 마이크로소프트 지속가능성 클라우드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 (Senior Program Manager Microsoft Cloud for Sustainability)

다음으로, <전문가 인사이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공급망 탈탄소화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공급업체와의 협력 문제 및 공급망 배출량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ESG 최신 동향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및 경제적 효익 달성

[자세히 보기](#)



ESG 등급 통찰:
EU 녹색분류체계 적합성(Alignment)

[자세히 보기](#)

<ESG 최신 동향>에서는, 세계은행이 발행한 ‘여성, 비즈니스, 그리고 법 2024’ 보고서를 통해 직장내 성별 격차를 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효익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Sustainable Fitch가 평가한 금융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색채권의 EU 택소노미 적합성이 주는 시사점을 알아봅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국내기업 10곳 중 5곳 "그린워싱 잘 몰라...상세 지침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43%가 그린워싱 기준에 대해 '잘 몰랐다'고 답했으며 그린워싱에 대해 별도의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41%에 달했다. 필요한 정책과제로 '상세 가이드라인 지침 제공'(65%)을 가장 많이 꼽아 정부의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 및 기업의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에서는, ▲국내기업 10곳 중 5곳 "그린워싱 잘 몰라...상세 지침 필요", ▲온실가스 배출량 경기 둔화·발전량 감소·기후변화 영향 4.4% 감소, ▲캘퍼스·NBIM 등 해외 투자자, KSSB 초안보다 강화된 공시기준 요구 등 ESG 동향 관련 주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연경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2. 2024 UNGC Korea Leaders Summit 안내(11/5)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2024
UN GLOBAL COMPACT
KOREA LEADERS SUMMIT

— ESG +20 YEARS ANNIVERSARY —

일정 | 2024년 11월 5일(화) 09:30 ~ 17:30

장소 |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ESG 20주년을 맞아 11월 5일,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합니다.

『Korea Leaders Summit』은 국내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로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국내외 지속가능성 이슈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이 연사로 참여해
기업 지속가능성을 내재화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G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UNGC의 'Who Cares Wins' 보고서를 통한 'ESG' 개념 제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2024 Korea Leaders Summit』은 지난 20년 동안의 ESG 여정을 돌아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길과 기여 방안을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UNGC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 안내

- UNGC 회원사 참여: 무료 (회원사당 최대 4인)
- 비회원사 기업 및 개인 참여: 기업 50만원 (기업당 최대 3인), 개인 25만원
- [선착순 마감 예정](#)

| 프로그램 (안)

시 간		프로그램	
09:30 - 09:35	5'	개회사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	
09:35 - 09:40	5'	축사1 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 	
09:40 - 09:45	5'	축사2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09:45 - 09:50	5'	축사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09:50 - 09:55	5'	특별 메시지 Georg Kell 초대 UNGC 사무총장 現 Arabesque Partners 회장 	
09:55 - 10:15	20'	기조연설: ESG 20년, 기업 지속가능성의 미래와 UNGC의 역할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10:15 - 10:25	1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기업 세리머니	
10:25 - 10:30	5'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세리머니	
10:30 - 10:45	15'	공연 코웨이물빛소리합창단	
10:45 - 11:45	60'	Who Cares Wins 20주년 토크 콘서트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Moderator] David Atkin UN PRI CEO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임대웅 UNEP-Fi 한국대표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 이종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11:45 - 13:00	75'	휴식 및 오찬 * 12:45 - 13:00 Climate Ambition Accelerator, Target Gender Equality 수료식	
13:00 - 13:25	25'	서베이1: UNGC X 리멤버 - ESG 인식 조사 최재호 리멤버 대표이사	
13:25 - 14:00	35'	특별 강연: DE&I 강의 김규진 로레알코리아 이커머steam 매니저 및 DEI COMMITTEE	
14:00 - 14:10	10'	휴식 및 분과 이동	
14:10 - 15:20	70'	분과1 (*CoREi 공동주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Moderator] Philipp Hildebrand 블랙록 부회장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 이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조사통계연구실장 최규중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용승재 NH투자증권 인프라투자2부 이사	분과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포럼 공동주최) 데이터 경제에서의 인권 리스크 관리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oderator] Vera Jourova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 구분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김금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15:20 - 15:30	10'	휴식 및 네트워킹(커피 브레이크)	

15:30 - 16:40	70'	분과3 그린워싱과 기업 대응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Moderator] Isabelle Pérignon EU 소비자정책국장 박준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경석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장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분과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 및 금융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Moderator] Mushtaq Kapasi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아시아태평양 대표 🗣️ Nabylah Abo Dehman PRI Advance 사회/인권/스튜어드십 실장 🗣️ 조병준 한국신용평가 ESG실 실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 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16:40 - 16:55	15'	휴식 및 본 회의장 이동	
16:55 - 17:10	15'	세미나2: UNGC X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청년인식 조사 김재훈 서울대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17:10 - 17:25	15'	럭키 드로우 이벤트	
17:25 - 17:30	5'	폐회사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특별세션] Who Cares Wins 20주년 토크 콘서트 (10:40~11:40)

- Who Cares Wins 보고서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 기업, 국제기구, 평가사, 투자자의 관점에서 ESG의 역사 및 인사이트 공유
- ESG의 20년 자취와 국내 기업의 ESG 현황 검토

시간	프로그램
5'	Who Cares Wins 20주년 특별 메시지 - David Atkin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최고경영자(CEO) 🗣️
55'	토크 콘서트: ESG의 20년 자취와 국내 기업의 ESG 현황 검토 - Moderator: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 패널: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사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 한국대표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특별강연] 포용적인 DEI 기업문화의 확산 (13:25~14:00)

- 기업 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및 문화 소개
- 다양한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의 직원 및 파트너를 포용하는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소통의 장 마련

시간	프로그램
5'	세션 소개
5'	기업 내 DEI 정책 경험 공유 및 제언 🗣️ - 한지영 세아상역 영업부 차장 Dimas Partama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부 과장 배준환 카카오 링키지랩 운영1파트 팀원
25'	강연: 포용적인 DEI 기업문화의 확산 - 김규진 로레알코리아 이커머스팀 매니저 및 DEI COMMITTEE

[분과세션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14:10~15:20) *CoREi 공동주최

-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 동향 파악
- 국내 재생에너지 공공 및 민간 투자 펀드 운용현황 및 시사점 공유
- 공급망 인계이지먼트 확대 및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방안 모색

시간	프로그램
10'	발표 1.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 동향 - Philipp Hildebrand 블랙록 부회장 
10'	발표 2.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동향 및 펀드 운용현황 -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
10'	발표 3. 국내외 재생에너지 민간금융 및 투자의 동향과 확대 방안 - 이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조사통계연구실장
40'	패널 토론: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현안 및 기업 대응 전략 - Moderator: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패널: 융승재 NH투자증권 인프라투자본부 인프라투자2부 이사 최규중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분과세션 2] 데이터 경제에서의 인권 리스크 관리 (14:10~15: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포럼 공동주최

-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과 인권 동향 소개
- 테크기업의 인권실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공유
- 데이터 경제에서의 인권 리스크 관리 방안 논의

시간	프로그램
3'	환영사 및 세션 소개 -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10'	발표 1. 글로벌 동향 및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 - Vera Jourova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15'	발표 2. 데이터 경제 시대의 인권 보호: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대응 -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42'	패널 토론: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인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대응 방안 - Moderator: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패널: 하정우 네이버 퓨처시센터 센터장 구분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김금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분과세션 3] 그린워싱과 기업 대응 (15:30~16:40)

-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현황 및 시사점 공유
- 그린워싱 법적 규제가 제품 및 서비스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규제 흐름 파악
- 기업의 그린워싱 규제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 및 과제 토의

시간	프로그램
5'	발표 1. EU의 그린워싱 규제 현황 소개 - Isabelle Pérignon EU 소비자정책국장 🗣️
15'	발표 2. 그린워싱 규제 흐름 및 소송사례 - 박준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5'	발표 3. 국내외 녹색금융제도 - 김경석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
35'	패널 토론: 그린워싱과 기업 대응 - Moderator: 홍중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 패널: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장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과제션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 및 금융(15:30~1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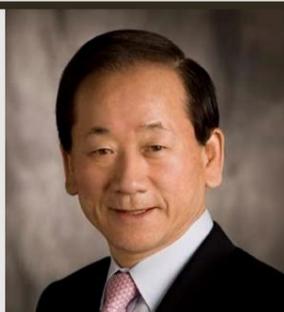
- 글로벌 사회적 투자 및 금융 동향 파악
- 국내 사회적 채권 운용현황 및 시사점 공유
- 인권, 노동, 교육, 농업, 의료, 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투자 및 금융 확대 방안 모색

시간	프로그램
10'	발표 1. 글로벌 사회적 투자 동향 및 ICMA 채권 가이드라인 소개 - Mushtaq Kapasi ICMA 아태지역 대표의장 🗣️
10'	발표 2. 국내 사회적 채권 발행 현황 및 시사점 - 조병준 한국신용평가 재무평가본부 ESG실 실장
10'	발표 3. PRI Advance: 인권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스튜어드십 - Nabylah Abo Dehman PRI Advance 사회/인권/스튜어드십 실장 🗣️
10'	발표 4. 사회적 투자 및 금융 사례
40'	패널 토론: 국내 사회적 투자 현안 및 활성화 방안 - Moderator: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패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 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주요 연사 소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前 국제로타리 회장



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Georg Kell
초대 UNGC 사무총장,
現 Arabesque Partners 회장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前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Vera Jourova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David Atkin
UN PRI CEO



Philipp Hildebrand
블랙록 부회장



Nabylah Abo Dehman
PRI Advance
사회/인권/스튜어더십 실장



Mushtaq Kapasi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Mushtaq Kapasi 아시아태평양 대표



Isabelle Pérignon
EU 소비자정책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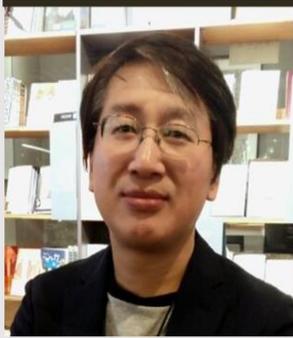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임대웅
UNEP-FI 한국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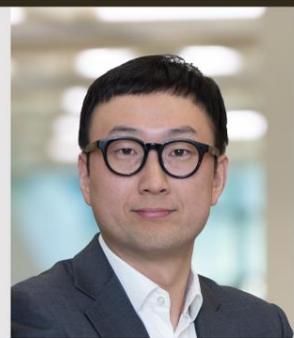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



이중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최재호
리멤버 대표이사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중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



용승재
NH투자증권 인프라투자2부
이사



이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조사통계연구실장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김금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



석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장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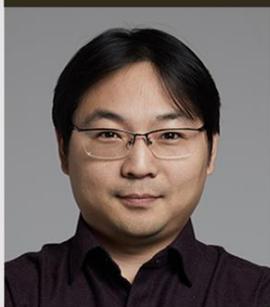
박준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규진
로레알코리아 이커머스트팀 매니저 및
DEI COMMITTEE



조병준
한국신용평가 ESG실 실장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82/2149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3. UNGC와 함께하는 플로깅 봉사데이 모집(~11/8)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UNGC가 회원사와 함께 상반기 유기견 봉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해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활동에 함께 참여해보세요!

| 세션 개요

- 일시 : 2024년 11월 15일(금), 10:00 - 15:00
- 장소 : 인천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 이동 : 버스 임차 단체 이동 (개별 이동 가능)
- 내용 : 해수욕장 해변 쓰레기 줍기

| 등록 안내

- 등록 마감: **2024년 11월 8일(금)**
 - ※ 단체 예약을 위해 기한 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 ※ 선착순 30명 모집 예정(최종 참석자 명단은 11월 11일 안내 예정)
 - ※ 기업 및 기관당 **최대 2인** 신청 가능

| 행사 일정

시간		프로그램
8:00 - 10:00	120'	집합 및 출발(서울 → 을왕리 해수욕장)
10:00 - 10:15	15'	현장 도착 및 OT
10:15 - 12:00	105'	봉사활동(해변 쓰레기 줍기)
12:00 - 12:15	15'	뒷정리 및 식당 이동
12:15 - 15:00	165'	네트워킹 오찬 * 식사 장소 추후 공지 예정
15:00 - 17:30	150'	해산 및 이동

| 기타 안내 사항

- 이동방법 : 버스 임차(단체 이동)
※ 서울시 내 2개 지하철 역 인근에서 정차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추후 개별 안내
- UNGC 지원 물품 : 플로깅 키트(생분해 비닐봉투, 집게, 목장갑)
- 개인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신발

※ 보안 시스템 등으로 인해 등록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경우,
기업·기관명/부서/성함/직함/이메일/전화번호를 기재하여 gckorea@globalcompact.kr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82 E-Mail. kwak@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4.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I 참여 기업 모집 안내 (~12/20)



The banner features the UN Global Compact logo on the left, followed by the text '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 and a colorful circular graphic. To the right, it says '본 프로그램은 Shift와 함께 합니다.' and 'Shift' in a large, stylized font. Below this, the main title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is displayed in large white Korean characters, with the subtitle ':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에서 이행으로' underneath. A blue button with white text '참여 신청 바로가기 ▶'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The right side of the banner is a collage of images showing diverse people in various professional and social settings, including a woman in a pink shirt, a man in a grey shirt, and a woman in a yellow shirt.

전 세계 50개국의 지역협회에서 운영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는 중대한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지속적인 실사 절차 개발 및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참여 기업의 인권 여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6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워크숍 및 온디맨드 세션을 통해 인권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고유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총 네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UNGC 아카데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네 번의 온디맨드(On-demand) 세션, 국내 참여 기업과 함께 진행되는 워크숍, 그리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Shift에서 진행하는 여섯 번의 글로벌 심화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UNGCC 회원사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모집 마감일은 **12월 20일(금)**입니다.

참여 혜택

참여자는 자사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파악하며, 노력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인권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 이러한 결과를 다양한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조치와 절차의 효과 및 결과를 추적합니다.
- 인권실사의 법제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표준과 부합하는 운영 방식을 이해합니다.
- 영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통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취한 조치와 결과를 공개합니다.
- 동료, 유엔 파트너 및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권 여정을 지원하고, 인권실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합니다.

참여 대상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이거나 가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권 영향을 파악하고, 가치사슬의 핵심 영역을 더 주목하여 살펴볼 의지가 있습니다.
- 액셀러레이터 활동 및 동료 학습 세션(대면 워크숍) 등에 참여할 담당자 2명(지속가능성, 인사, 공급망 관리 등 관련 부서 소속)
- 액셀러레이터 발전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임원급 '챔피언' 지정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일정(안)

내용	참여기업 모집	kick-off 및 OT 세션	모듈 1~4	수료식
일정	'24년 9월 ~ 12월 20일(금)	'25년 2월 중	'25년 2월 ~ 7월 (프로그램 내용 참조) ※ 대면 워크숍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5년 6월 또는 7월

프로그램 내용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UNGC 아카데미 플랫폼 내 온디맨드 세션 4회 및 글로벌 심화과정 6회 등), 오프라인(Kick-off 및 OT 미팅 1회, 대면 워크숍 3회)



※ 프로그램 일정 및 모듈별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5.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3 차 미팅 결과(10/11)



□ 일시: 2024 년 10 월 11 일(금), 9:00 - 12:00

□ 장소: 바비엡 2 교육센터 에메랄드홀 B1

□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7 월 11 일(목), 총 15 개 기업에서 21 명의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3 차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기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배출량 산정 및 공시 동향>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와 기업사례를 살펴보고, 참여기업 간 기후 리스크 및 탄소배출량 관리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배출량 산정 및 공시 동향



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KoSIF) 박남영 책임연구위원은 국내외 기후 공시 발전 흐름과 현 추세에 따른 금융배출량 산정 및 공시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15 년 파리협정을 시작으로, EU 금융안정국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에 따른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SFDR) 및 EU 택소노미의 도입, 그리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을 위한 원칙' 발표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기후 리스크를 감독하는 제도적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후변화 대응 및 감축전략을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기후 리스크의 평가를 위해

총재 직속의 지속가능성장실을 올해 1월 신설하고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배출량이 금융기관의 전체 탄소배출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 기후 리스크와 금융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금융배출량 산정방법으로 탄소회계금융연합(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의 개념과 방법론을 상세히 설명하며, ▲PCAF Standard 3 가지 구성, ▲7 가지 자산군 분류, ▲금융배출량 산정 원리, 그리고 ▲2024년 Standard 추가영역 개발계획(전환 및 녹색금융, GHG 인벤토리 변동, 유동화 상품, 추가 보험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CDP→TCFD→CSRD/SEC/ISSB 로 이어지는 글로벌 기업공시 의무화 동향을 공유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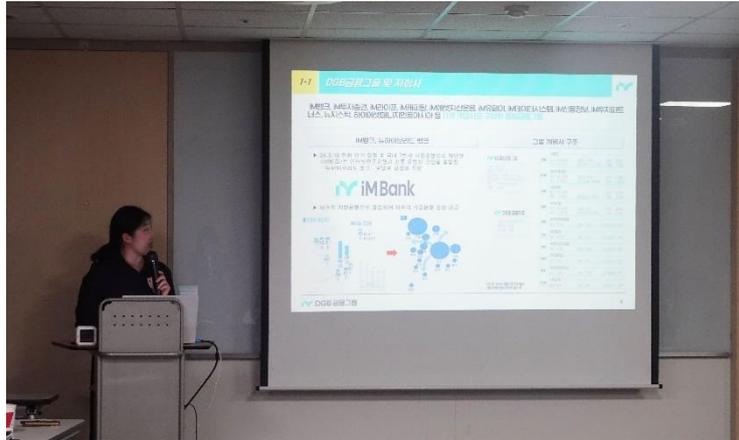
II.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박상훈 과장은 국내 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 현황과 금융 당국의 제도적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박 과장은 국내 20개 은행 중 55%가 탄소중립목표를 수립했으며, 이 중 45%(9개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은행들은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차주의 온실가스 감축 직·간접적 지원, ▲고탄소배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 ▲금융배출량 측정 및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출량 관리 방식으로 SBTi 권고안을 통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측정 및 관리지표로 PCAF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과장은 국내 은행들이 자체 중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배출량 감축의 제약요인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 ▲중소기업 중심의 여신구조, ▲녹색금융 인프라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배출량 관리지표의 다양화,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및 배출권 구매 지원 등 녹색투자 유인 제고, ▲녹색대출 인증절차 간소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며, 국내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저탄소경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III. 기업 사례: DGB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ESG 전략경영연구소 조고은 프로페셔널매니저는 DGB 금융지주의 11 개 계열사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배출량 관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목표 승인 사례를 소개하며 목표수립에 사용한 섹터별 감축방식(SDA, 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과 TR(Temperature Rating) 방법론을 안내하고, Scope3 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은 PCAF 방법론을 활용하여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배출량 관리활동으로는 ▲ESG 지표를 시각화해 추이 및 목표달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ESG 통합 시스템 구축, ▲차주(탄소감축 대상 업체)와의 인게지먼트 활동, ▲여신, 외환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을 소개했습니다.

IV. SDGs 를 위한 CFO 연합: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투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안성은 과장은 ‘SDGs 를 위한 CFO 연합(이하 CFO 연합)’에서 발간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투자’ 국문 번역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1) CFO 원칙: 기후행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2)기후 완화를 위한 기업 투자 현황, 3)섹터별 탄소중립 경로 및 투자 사례: 기회와 도전과제, 4)기후 투자 확대를 위한 혁신 전략 등 네 가지 CFO 연합의 핵심 원칙이 기업의 기후 투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안 과장은 CFO 연합 회원사인 포르투갈의 전력 기업인 EDP(Energias de Portugal)의 기후투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V. 참여 기업 현안 공유



이어진 참여 기업 현안 공유 시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선미 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사별로 기후 리스크 및 탄소배출 관리에 관한 이슈와 도전과제들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참여 기업은 탄소 감축목표에 따른 금융배출량 관리에 대해 ▲금융배출량 관리범위, ▲PCAF, GHG 프로토콜 등 산정 방법, ▲금융자산 및 포트폴리오 관리,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현안을 나누며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해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안성은 과장(070-4327-9771,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6.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결과(10/2)

□ 일시: 2024년 10월 2일(수), 14:00 - 17:15

□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 주요 내용: 국회 ESG 포럼의 공동 운영사무국을 맡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2일(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럼 참여 여야 의원을 비롯해 기업,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ESG 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정책 아젠다>를 살펴보고,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세션 1. 발족식 >

I. 개회사



민병덕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ESG 포럼을 발족하여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제도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의 성과로 잇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 ESG 포럼이 특정 정당을 넘어 여야의 통합적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특별한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희용 대표의원(국민의힘)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ESG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ESG 와 관련한 정책이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지원 방향에 중점을 두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국회 ESG 포럼이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정부, 기업,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I. 환영사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ESG 바람을 타고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진화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경제가 ESG 바람에 날아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있다며, 전 세계는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ESG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회 ESG 포럼이 지속가능성의 청사진이 되어, ESG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ESG 기본법으로 핵심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Who Cares Wins’ 보고서를 통해 ESG 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온 지 20 년이 되는 해에 국회 ESG 포럼의 공동 운영사무국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시장의 ESG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ESG 가 단순히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ESG 이슈를 정책적으로 깊이 논의하고 실질적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ESG 포럼을 발족하여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III.축사

다음으로 국회 및 각 당, 정부 관계자의 서면과 영상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ESG 포럼의 발족을 축하하며, 우리 사회 전체가 이해관계자인 ESG 를 논의하는 장을 국회가 연 것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ESG 생태계 구성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모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ESG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ESG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국제 경쟁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ESG 포럼의 발족은 매우 적시적이고 중요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후변화가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 ESG 는 필수 경영 가치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ESG 경영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ESG 포럼의 시작이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ESG 관련 법과 정책을 정비해 나가며, 국내에서도 ESG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ESG 포럼이 국내 ESG 생태계 축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국민의힘 또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분절과 기후위기, 출생률 감축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의 ESG 경영 활성화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ESG 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기후 공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이 ESG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논의체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이며, 우리 기업이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법과 제도의 정비が必要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등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논의의 장이 될 국회 ESG 포럼에 기대를 전하며, 금융위원회도 ESG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IV. 국회 ESG 포럼 발족 목적 및 운영계획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국회 ESG 포럼의 44 인의 국회의원 회원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과 금융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본 포럼은 ESG 인프라 구축과 정책 부문의 미비한 부분을 식별하여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여야 국회의원과 ESG 전문가들이 함께 탈진영, 전문성, 포괄성을 원칙으로 다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ESG 경영 분과'를 맡아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금융 분과'를 통해 ESG 금융 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며, △ESG 선순환 생태계 모델 연구, △ESG 경영·금융 정책 과제 발굴, △이해관계자 ESG 인식 제고 및 행동계획 마련, △국제적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V. 제 22 대 국회 ESG 포럼 정책 아젠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제 22 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해야 할 ESG 정책 아젠다로 △ESG 기본법 제정,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ESG 정보공개 의무화, △ 기후리스크를 고려한 자산건전성 평가,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의 넷제로 정책 수립,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및 주주권 확대, △ESG 공급망 실사법, △ESG 공공 조달, △ESG 위상 방지책 강화 등 10 개 아젠다를 소개하며,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의 ESG 생태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와 투자자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ESG 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설명하며, 기업, 금융기관, 평가기관, 검증기관,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ESG 주체들의 상호관계를 반영한 법·제도·정책을 만들어 ESG 정보를 매개로 한 자본의 흐름인 ESG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세션 2. 기념 토론회 >

I.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국제사회의 ESG 제도가 국내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ESG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ESG 선도 기업이 더 많은 금융 및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인 ESG가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김 연구원은 △건전한 ESG 정보와 자금의 흐름을 위한 ESG 인프라 구축 △기존의 ESG 관련 제도와 규제의 체계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ESG 위상 방지, △해외 ESG 정책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보 제공으로 ESG 기본법의 역할을 설명하였습니다. ESG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이 시장의 선택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II. 패널 토론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아 ESG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 중임을 밝히며, 기업들의 이중공시 부담을 덜기 위해 글로벌 기준을 반영하여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시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을 밝히며, 공시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정책목표 달성과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 포럼이 추진 중인 ESG 기본법을 고려한 공시기준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세부사항에 이해관계자별 의견이 상이하여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공시기준 확정에 맞춰 시행시기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장은 ESG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며, 이 법은 ESG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본 원칙, 국가와 기업의 책무 등을 중심으로 제정하고, 공시법, 실사법 등은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SG 가 포괄하는 여러 이슈 중 지속가능금융이 핵심이며, 정부는 시장 흐름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ESG 공시기준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ISSB 뿐만 아니라 ESRS 도 반영하여 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고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재규 한국 ESG 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은 건강한 ESG 생태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ESG 의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코스닥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도입이 시급하다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과 같은 긴급 이슈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ESG 평가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ESG 가 기업 자율에서 벗어나 법제화 및 의무화되는 글로벌 동향을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SG 공시 의무화 등 ESG 규제가 선진국을 필두로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ESG 공시가 선불리 의무화될 경우, 자회사와 협력사들의 데이터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ESG 를 통상규제로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가 우리 기업들에게 중복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정책과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며, 국내 정책은 ESG 규제화보다는 해외 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기업의 본질가치와 ESG 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및 정보의 실제 수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ESG'라는 용어가 남용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실장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인센티브 확립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공시가 이루어지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발적 공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기금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정부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SG 경영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을 통해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ESG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또한 투자자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정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구분하여 공시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ESG 기본법의 도입이 시급하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하며, 기업 간 ESG 정보나 재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발제를 진행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기후 운영 수익을 1% 올리기 위해서는 ESG 관련 정보 활용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직접 기업들에게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ESG 정보 공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춘승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제 21 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ESG 기본법에 대한 의견, △중소기업들의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측정을 위한 준비 방안, △ESG 기본법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반영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내용 포함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는 포럼 참여 여야 의원을 비롯해 기업,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 기본법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운영사무국으로 지원하는 국회 ESG 포럼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산 및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7. 2024 하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 결과(9/27)

□ 일시: 2024년 9월 27일(금) 14:30 - 17:30

□ 장소: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4층 미드센추리룸

□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지난 9월 27일(금), UNGC 회원사 ESG 팀장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를 개최하였습니다. 51개사 55명의 팀장들이 참석한 본 행사에서는,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부대표가 ESG 평가 최신 동향과 향후 방향에 관해 발표하며 평가 대응에 있어 ESG 팀장의 중추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진 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ESG 전략 수립 및 추진에 있어 팀장의 주요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및 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I. 인사말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은, 올해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서 ESG 라는 키워드를 만든 지 20 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기업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ESG 팀장의 중추적 역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UNGC 는 ESG 팀장들의 핵심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II. 'ESG 팀장 서베이'



먼저 '상반기 ESG 현황 조사 결과'를 공유한 후 '하반기 ESG 현황 조사'를 통해 참여 기업들의 ESG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SG 팀장으로서 중요한 역량'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꼽았습니다. 또한 ESG 추진에 대한 '리더십의 지지 및 지원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적극적' 또는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향후 중요 ESG 이슈'는 ①공시 대응, ②탄소배출관리, ③재무연계 성과 측정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대비한 구체적 이행 준비로는 ▲범위 설정, ▲실사 체계 구축 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ESG 팀장이 최우선으로 두는 업무’는 ①ESG 공시 및 보고서 작성, ②ESG 평가 대응, ③ESG 전략 수립 및 추진, ④ESG 경영 체계 구축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도전과제’는 ①광범위한 ESG 업무 범위, ②유관부서 협력 및 문화조성, ③경영진 커뮤니케이션이 꼽혔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외부적 요소’로는 ①경영진의 적극적 지지, ②경영전략과 ESG 연계, ③유관부서 협조 및 문화조성 순으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III. 서스틴베스트 ‘국내외 ESG 평가 동향 및 팀장의 역할’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부대표는 국내외 ESG 평가 동향과 ESG 팀장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ESG 평가시장의 3 대 주체인 기업, 기관투자자, 그리고 ESG 평가기관으로, 평가기관의 중개자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 평가 시 ESG 데이터 사용 비율이 ‘18년 12%에서 ‘22년 43%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주요 ESG 평가기관별 특성 및 차이점, ▲국내 ESG 평가기관 간 상관성, ▲신용평가와 ESG 평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며, 서스틴베스트가 평가 및 공시 대응의 상호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부대표는 향후 ESG 평가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ESG 종합점수보다는 특정 지표에 대한 평가가 요구될 것이며, ▲평가기관의 투명성, 신뢰성, 이해관계자 간 상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산업군에서 중요한 특정 ESG 이슈를 깊이 있게 대응하는 기업이 진정성을 인정받고,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ESG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ESG 팀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IV. ESG 팀장 사례 발표 - 애큐온캐피탈,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이어서 ‘ESG 전략 수립 및 추진 사례’를 주제로 애큐온캐피탈, 포스코, LG 디스플레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애큐온캐피탈 김민철 ESG 팀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 마련과 ESG 전략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UNGC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업계 최초로 SBTi 단기 목표와 넷제로 목표를 모두 승인받은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직접 발간을 위해 부서별 ESG 과제를 제시하고, KPI 수립을 추진한 사례를 공유하고, ‘슈몽이’와 ‘꿈콩이’ 캐릭터를 활용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긍정적인 인식 개선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상은 포스코 지속가능경영실 ESG 팀장은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기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SG 추진 전략으로 ▲리더십 설득, ▲임원별 1 과제 부여와 성과 평가 체제 도입, ▲부서 간 협의,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강화 등 ESG 팀장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국내 철강분야의 공급망 평가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 균일한 공급망 평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올해 7월부터 ‘철강밸류체인 공급망평가 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향후 글로벌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태희 LG 디스플레이 ESG 실사/평가팀 팀장은 ESG 과제 운영체계를 설명하며, 총 9 개의 ESG 영역의 추진 과제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환경기술, 인권경영, 지배구조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경영진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ESG 관리체계 구축, ▲협력사 역량 지원을 위한 자가설문 실시, ▲현장실사 등 전 협력사 리스크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실사를 위해 구매 조직과 실사체계를 구축하고 내재화하고 있으며, ESG 관리체계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유관부서를 동기부여하는 기회로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 토크콘서트



이어서 토크콘서트에서는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이 기업연사들과 함께 ▲SBTI 및 넷제로 목표 승인 과정, ▲그린워싱 방지 내부 시스템 구축 및 언론 대응 전략, ▲ESG 위원회 아젠다 선정 및 추진 전략 등에 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참석한 팀장님들은 공연, 만찬과 함께 자유롭게 현안을 나누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지난해 'ESG 팀장 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참석한 팀장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연 2 회로 확대하여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ESG 리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ESG 팀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안성은 과장(070-4327-9771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글로벌 식량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업 활동 가속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민간 부문 관계자와 정부, 유엔, 시민사회의 리더 60 여명을 초대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식량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업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5 년 유엔 식량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4)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형성하고 책임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은「2023 년 유엔 식량시스템 정상회의(UNFSS+2 Stocktaking)」기간에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공동행동(UN Global Compact Collective Action on Sustainable Food Systems)」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은 글로벌 식량 생산 및 유통, 소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량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지속가능한 관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산림 벌채, 용수 사용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참여는 식량 안보를 개선하고 공정한 노동 관행을 장려하며 회복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식량 접근성에 대한 글로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UNGC 는 유엔 식량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s) 계기 도출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식량시스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식량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업 행동을 가속화할 것으로 믿습니다.”

‘팅이 케이맨 제도 홀딩 코퍼레이션(Tingyi Cayman Islands Holding Corp.)’의 CEO 인 인장 첸(Yinjang Chen)은 “마스터 콩(Master Kong)이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공동행동(UN Global Compact Collective Action on Sustainable Food Systems)’ 운영위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회복탄력적이며 공평한 식량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에 참여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식품시스템을 위한 기업 행동의 전환 및 책임을 가속화하는 주요 수단을 모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행사는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에 관한 유엔글로벌컴팩트 공동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 공동행동 이니셔티브는 ‘유엔 식량시스템 조정 허브(UN Food Systems Coordination Hub)’와 협력하여 15 개의 유엔 및 비유엔 기구로 구성된 실무그룹의 주도하에 환경, 사회적 형평성, 영양, 금융 등 주요 영역에서 기업 행동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 독려 및 더욱 견고하며 지속가능한 식품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는 등 중대한 도전과제 해결방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동행동은 글로벌 식품시스템 변화를 위해 기업과 금융 기관이 SDGs 와 일치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2. 해운 산업 선도 기업들의 공동성명 발표



제 79 차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계기, 해운 및 운송 기업은 해양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합의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운 업계 탈탄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중기 대책 마련 촉구

- 해운 및 운송 산업 공동성명문 -

제79차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맞이하여, 비즈니스 리더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모든 회원국이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야심차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혹은 제로에 가까운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이행을 촉구합니다.

해운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IMO를 통해 특별하고 광범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해운 산업은 효율적인 글로벌 무역을 지속하는 동시에 야심찬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전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기 대책이 포함된 강력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조속히 마련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화석연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이 수렴하는 해양 연료 간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재정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려면 해양 연료의 생산력과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화석연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이 수렴하는 해양 연료 간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재정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려면 해양 연료의 생산력과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조성할 수 있으며,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늦게 대응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투자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운 및 운송 기업은 정부, 유엔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총력의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3. 2024 UNGC 리더스 서밋,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긴급한 행동의 필요성 강조



지난 9월 24일 뉴욕에서 ‘2024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24)’이 폐막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전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화와 행동에 대해 논의한 본 행사에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 유엔 등 리더 약 천 명이 참여하였으며 책임 있는 기업 관행, 혁신, 파트너십 기반으로 2030 의제(2030 Agenda)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전체 세션, 분과 세션, 네트워킹 기회에 참여했으며 각각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슈퍼사이클과 공동의 미래를 위한 약속” 세션은 Future Today Institute의 설립자인 에이미 웹(Amy Webb)을 좌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AI 등 신흥 기술의 역할이 논의되었습니다.

* Future Today Institute: 데이터 및 연구 기반 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미래에 마주할 리스크 관리 및 기회를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개발하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 “2030을 향한 가속화”를 주제로 유엔환경계획 친선대사(UN Environment Programme Goodwill Ambassador) 돈 치들(Don Cheadle)이 글로벌 도전 과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결책 마련을 주도해나가야 하는지 조명했습니다.
- ‘권리와 바이트(Rights & Bytes): AI와 인권의 경계’는 AI 시대의 기업 책임을 논의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행동 수칙’은 글로벌 공급망내 기업의 책임 있는 구매 관행 및 환경 스튜어드십 구축 관련 모범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 ‘성평등 기획하기’ 세션은 기업이 형평성과 포용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와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 ‘기후 목표를 위한 기업 투자’ 세션에서는 기업이 재무전략을 보다 강력한 기후행동과 연계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리더스 서밋은 [‘포워드 패스터’\(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가 제시하는 5 가지 핵심 분야인 성평등, 기후행동, 생활임금, 수자원 회복탄력성, 금융 및 투자에 대한 민간 부문의 노력에 대해 다뤘습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지속가능금융에서 민간 자본의 변혁적인 잠재력을 강조하며 “기업은 이미 의료, 교육, 과학 발전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금융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민간 금융 자산이 200 조 달러에 달하는 만큼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할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이러한 자산 규모는 기업의 행동이 단순한 문제 파악에 그치지 않고, 특히 금융 격차가 가장 심각한 신흥 시장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메커니즘 수립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재무적 수익과 영향력 있는 장기적 가치 창출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 시장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리더스 서밋의 하이라이트는 [‘2024 SDG 선구자’\(2024 SDG Pioneers\)](#) 선정이었습니다. 이 상은 조직 내에서 리더십과 혁신을 통해 SDGs 를 진전시킨 전 세계 비즈니스 전문가에게 수여됩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서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다국적 대기업과 중소기업(SME)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SDG 선구자들은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개발부터 성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생산 관행 확립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민간 부문이 기존의 약속을 넘어 지속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창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자세히 보기](#)

4. 지구의 3 중 위기 해결을 위한 플랑크톤 선언문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이니셔티브인 해양스튜어드십연합(Ocean Stewardship Coalition)에서 ‘플랑크톤 선언문(Plankton Manifesto)’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 79차 유엔 총회에서 공개된 본 선언문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상호 연결된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플랑크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플랑크톤 선언문은 3 중 지구 위기에 대한 우리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플랑크톤은 해양 생태계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오염에 맞서 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플랑크톤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의 생태 기능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며 긴급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35억 년 이상 지구 생명체의 근간이 되어온 미생물인 플랑크톤은 지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능을 수행합니다. 플랑크톤은 매년 산소의 상당 부분을 생성하고, 해양 생물학적 탄소 펌프(carbon pump)의 99%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의 탄소를 흡수하며, 수질을 정화하고, 해양 생물의 필수 영양분을 재순환시킵니다. 또한 해양 먹이사슬의 기반인 플랑크톤은 어업과 양식업을 통해 전 세계 인구 12% 이상에게 간접적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수에서의 플랑크톤 성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식수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플랑크톤은 그 엄청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랑크톤 선언문’은 인류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플랑크톤기반해법(Plankton-Based Solutions)’의 채택을 지지하고, 플랑크톤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DNA 서열결정(sequencing) 및 생물정보학, 위성 모니터링, AI 지원 이미지 분석, 기타 첨단 기술의 활용을 권장하는 등 이 중요한 유기체인 플랑크톤 보호를 위해 전 세계의 즉각적인 인식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플랑크톤 선언문’ 주요 내용

본 선언문은 플랑크톤을 보호하고 플랑크톤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3 중 지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 1. 플랑크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본 선언문은 해양 생태계 및 담수 시스템에서 플랑크톤의 중요 역할 및 플랑크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 노력을 조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플랑크톤 생물다양성과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론 개발, 공동 스크리닝 플랫폼 구축, 극지방 플랑크톤 연구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해양 및 담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 세계 통합 플랑크톤 지도책(plankton atlas)과 플랑크톤 기반 건강 지수를 개발할 것을 권장합니다.
- 2. 모두를 위한 플랑크톤 인식 제고:** 수질, 먹이사슬, 지구 생태 기능에서 플랑크톤의 필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계 및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플랑크톤 문해력(plankton literacy)’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본 선언문은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랑크톤 응용 분야의 시장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3. 글로벌 담화내 플랑크톤 이슈 반영:** 본 선언문은 국제 기후 및 생물다양성 논의에 플랑크톤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기후 완화에 있어 플랑크톤의 역할을 인지하고, 국가별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항목에 플랑크톤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플랑크톤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초국가적 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조약내 플랑크톤의 주요 기능이 반영되도록 지지합니다.

플랑크톤 선언문은 UNGC 주도하에 전 세계 주요기관과 국제 전문가 30 명이 참여한 공동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 선언문 관련 ‘기후 관련 COP29(COP29 on Climate)’, ‘생물다양성 관련 COP16(COP16 on Biodiversity)’, 2025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는 ‘유엔 해양 컨퍼런스(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등 주요 글로벌 환경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플랑크톤 선언문은 [이곳](#)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5. 지속가능성을 위한 CMO의 역할 강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 주요 CMO, 전문 경영인, 기업인, 유엔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첫 연례 회의인 ‘최고마케팅책임자(Chief Marketing Officer, CMO)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초청자에 한해 참석가능한(invitation-only) 본 행사는 지속가능성을 진전시키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성공을 견인하는 데 있어 마케팅 책임자들의 역할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한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본 ‘CMO 포럼’은 마케팅의 혁신적인 힘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탄력성 있는 글로벌 경제의 구축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깊이 있는 토론과 교류를 통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방식 기반 산업을 이끌면서 사람, 지구,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CMO 포럼’의 주요 내용

본 행사를 주관한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마케팅 책임자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개회사를 통해 “마케팅 책임자는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CMO 는 기업 전략에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소비자 행동뿐 아니라 산업 내 혁신적인 변화까지 주도할 수 있습니다. UNGC 는 더욱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함께 지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S&P 글로벌 CEO 겸 UNGC 이사 더그 피터슨(Doug Peterson)은 기초연설을 통해 마케팅 책임자가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ESG 관련 도전과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사람, 지구, 번영을 우선시하는 기업이 진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포럼의 주요 세션 중 하나인 ‘성장 재정의(Growth Redefined)’ 세션에서는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비즈니스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존의 수익 중심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대담인 ‘변혁적 혁신(Transformative Innovation)’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는 방법 관련 논의했습니다. 마케팅 책임자들은 혁신성과 지속가능성 목표의 연계가 어떻게 회복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중요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주요 강점에 집중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와 실제 구매간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결과 및 다음 단계: CMO 청사진 개발

마케팅 책임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전략 핵심에 지속가능성을 도입하도록 설계된 전략적 프레임워크인 ‘CMO 청사진(CMO Blueprint)’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CMO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의미 있고 측정가능한 기여를 통해 마케팅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의제를 주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행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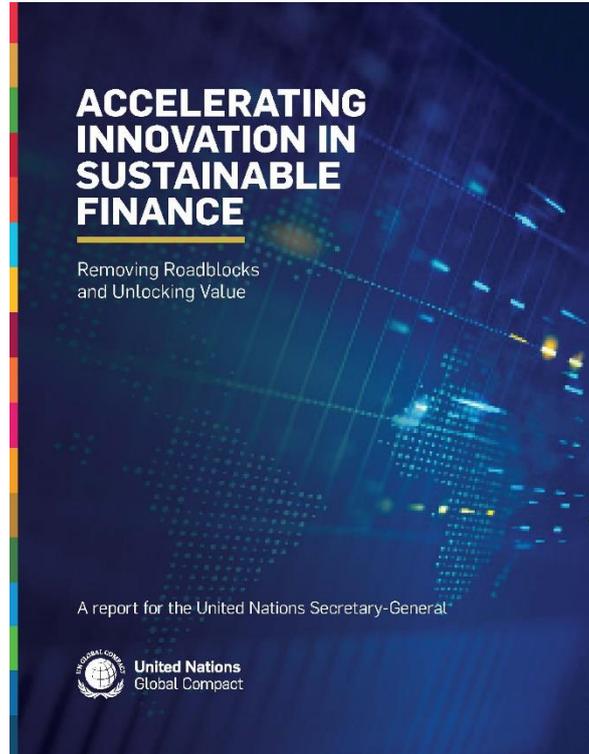
이번 포럼은 마케팅 책임자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기업 운영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MO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춰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고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 마케팅 책임자를 위한 행동 촉구

‘2024 CMO 포럼’은 단순히 생각을 나누는 모임을 넘어서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포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마케팅의 필수적인 역할을 재확인하였고, 참가자들이 의미 있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수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본 포럼의 성과가 구체화되어 2025년 ‘CMO 청사진’이 출범하면, 마케팅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히 보기](#)

6. '지속가능금융의 혁신 가속화' 보고서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자본의 혁신적 투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2024 SDG 투자 포럼'을 성공적으로 폐막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내 개최하여 기업, 금융, 정부, 시민사회의 리더들이 참여한 본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의 혁신 가속화](#)(Accelerating Innovation in Sustainable Finance)'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SDG 투자 포럼'은 지속가능금융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초석으로서, 시급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 관행내에 SDGs 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포럼은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한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이행 전략 수립'을 주제로 고위급 회담 및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의 주제가 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 투자 확대의 필요성:** 금융 격차가 가장 심각한 신흥시장내 민간 투자의 확장이 특히 필요합니다. 전세계 민간 금융 자본이 총 200 조 달러에 달하는 만큼, 민간자본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 **구조적 장벽 극복:** 투명성 부재, 리스크와 보상 간의 불일치, 금융시장내 지속가능성 통합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의 확립 ▲혁신적인 혼합금융 도구(tool) 사용 ▲새로운 성과 기반 금융 메커니즘의 도입 ▲신흥시장내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AI 기술 사용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 **유엔의 리더십 역할 확대:** 유엔은 글로벌 이해관계자를 소집하고 지속가능성 관행을 표준화하며,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엔은 기업 및 재무 의사 결정에 지속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육성해야 합니다.

‘2024 SDG 투자 포럼’의 주요 세션에서는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지속가능연계 투자, ▲젠더 관점 기반 투자,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는 기술의 역할 등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SDGs 달성에 필수적인 더 많은 투자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관협력과 혼합금융의 잠재력을 검토했습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지속가능금융에서 민간자본이 가진 변혁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전세계 민간금융 자산이 200 조 달러에 달하는 만큼, 금융부문이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할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최근 발표된 ‘지속가능금융의 혁신 가속화’ 보고서는 금융 격차가 가장 심각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특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메커니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무수익 및 영향력 있는 장기적 가치창출을 모두 이끌어내는 투자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PIMCO 의 크레딧 리서치 글로벌 총괄 겸 ‘SDGs 를 위한 CFO 연합(CFO Coalition for the SDGs)’의 공동의장인 크리스티안 스트라케(Christian Stracke)는 기업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환경 및 사회적 목표를 중시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지속가능한 투자의 성장 추세는 계속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발행된 ‘지속가능금융의 혁신 가속화’ 보고서가 민간자본이 SDGs 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는 민관협력을 촉진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PIMCO(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미국의 투자관리 회사로, 공공 및 민간시장에서 채권, 주식 및 기타 금융자산과 같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관리함

Enel 의 부서장 겸 ‘SDGs 를 위한 CFO 연합’의 공동의장인 알베르토 데 파올리(Alberto De Paoli)는 “우리는 금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민간자본과 SDGs 의 연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속가능성 연계와 혼합금융이라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 및 민간투자가 가장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실질적인 경제적, 재무적 가치 또한 창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지속가능한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이고 공평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Enel: 이탈리아의 다국적 전기 및 가스 제조 및 유통업체로, 1962 년 말 공공 기관으로 처음 설립된 후 1999 년 이탈리아의 전력 시장 자유화에 따라 민영화됨

S&P 글로벌 CEO 겸 'SDGs 를 위한 CFO 연합'의 전략 자문위원인 더글라스 L. 피터슨(Douglas L. Peterson)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1 세기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려면 자본 흐름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투명성, 책임성, 민관협력, 혁신성을 토대로 지속가능금융은 SDGs 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변혁을 주도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본 포럼은 또한 '미래 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와 2025 년 스페인에서 개최 예정인 '제 4 차 개발재원 국제 컨퍼런스(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의 논의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두 행사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보고서내 제시된 전략과 도구를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SDGs 에 대한 민간부문의 기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수립된 UNGC 전략의 핵심인 '포워드 패스터 이니셔티브(Forward Faster Initiative)'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동 이니셔티브는 혁신, 투자,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응을 용이하게 합니다.

[자세히 보기](#)

7. SDG 가속화를 위한 민간부문 공동행동 촉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지난 9월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던 '2024 민간부문 포럼(2024 Private Sector Forum)'을 성공적으로 폐막했습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100여 명의 CEO와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중대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진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불평등, 불안정한 글로벌 세계 경제 등 시급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채택된 '[미래협정\(Pact of the Future\)](#)'에 따라 결단력 있는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어제 채택된 '미래협정'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속화를 도모할 강력하고 포용적인 다자 체제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협정의 목표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SDGs 달성을 위한 기업 행동 촉진

이번 포럼은 SDGs를 위한 기업 행동을 촉진하는 글로벌 플랫폼인 '[포워드 패스터\(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의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2024 포워드 패스터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1700여 개의 기업이 2030 아젠다에 맞춰 성평등, 기후행동, 생활임금, 수자원 회복탄력성, SDG 금융 및 투자 등 주요영역에서 4,360개 이상의 목표설정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는 "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를 계기로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민간부문은 이러한 공동의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업들이 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수립된 목표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과 회복력,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는 협력 기반의 가시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보여주었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책 촉진 리포트: SDGs 를 위한 민간부문 행동 활성화

본 포럼은 '[민간부문의 SDG 가속화를 위한 정책 촉진](#)(Policy Enablers for Private-Sector SDG Acceleration)' 보고서도 주요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정책이 SDGs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기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및 기업, 시민사회의 대담한 리더십과 포용적 거버넌스,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앙골라, 브라질, 이집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 개국의 사례를 통해 부문 간 협력과 민관 파트너십, 맞춤형 정책 솔루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접근성, 청정 에너지, 공정한 노동 조건 전환 가속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법률 리더의 역할 강조

더불어, 포럼에서는 법률 부문 리더들이 정책옹호(policy advocacy)에 참여하고 '포워드 패스터'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인 '[UNGC 법률 위원회](#)(UN Global Compact's Legal Council)'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글로벌 규제 환경 분석, 전략적 가이드 제공,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장애물 제거를 통해 기업들이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자주의 성명서

이번 포럼에서는 UNGC,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주도한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다자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글로벌 비즈니스 성명](#)(Global Business Statement on the Need for a Strong, Inclusive, and Effective Multilateralism)'도 발표되었습니다. 이 성명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공동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다자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8. 강력하고 포용적인 다자주의를 향한 글로벌 기업 성명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에서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다자주의는 공통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미래 세대의 번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 기업 커뮤니티는 유엔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협력해 민간부문이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주요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글로벌 기업 커뮤니티는 ‘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 계기, ‘미래협정(Pact of the Future)’과 같이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과 다양한 문화 및 국가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퇴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완화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입니다. 지속가능한 기업,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안정적인 지역 및 국가 경제를 위한 환경 조성은 사회·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입니다.
- **리스크 관리:** 다자주의는 팬데믹,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같은 글로벌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공동행동을 촉진합니다. 기업은 유엔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위험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합니다.
- **미래를 위한 번영:**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존과 번영, 그리고 회복탄력성을 위해서는 주권평등 원칙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상호 연결된 국제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식 및 비공식 다자간 대화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범정부 공동 목표를 전략적 비즈니스 성과와 일치시킬 수 있으며, 이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 **글로벌 안정성:** 유엔과 같은 다자간 메커니즘은 글로벌 안정, 평화, 협력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은 기업이 무역과 투자 및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시장 접근성 및 무역기회:** 유엔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체결된 다자간 협정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정비하고, 비즈니스 관행을 표준화하여 더 확장된 시장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초국가적 상거래를 촉진합니다. 기업은 이와 같은 다자간 협정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혁신과 기술:** 다자간 협력은 지식 공유 및 혁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데, 이러한 협력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와 의견 교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연구를 발전시키며,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첨단기술에 협력하는 등의 전문성 제공을 통해 다자간 협력에 기여합니다.
- **인권 및 노동권:** 인권은 사회계약의 핵심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유엔은 기업의 인권존중, 직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옹호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국제표준 준수를 장려합니다. 이렇듯 책임 있는 기업 관행을 장려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업 및 직원,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산하 기업 및 주요 산업 그룹(Business and Industry Major Group)과 더불어 국제 비즈니스 단체로서 우리는 본 성명을 지지하며, 사람과 지구의 상생을 위한 필수 협력 파트너로서 정부와 유엔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본 성명서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지지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SAMSUNG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I. 기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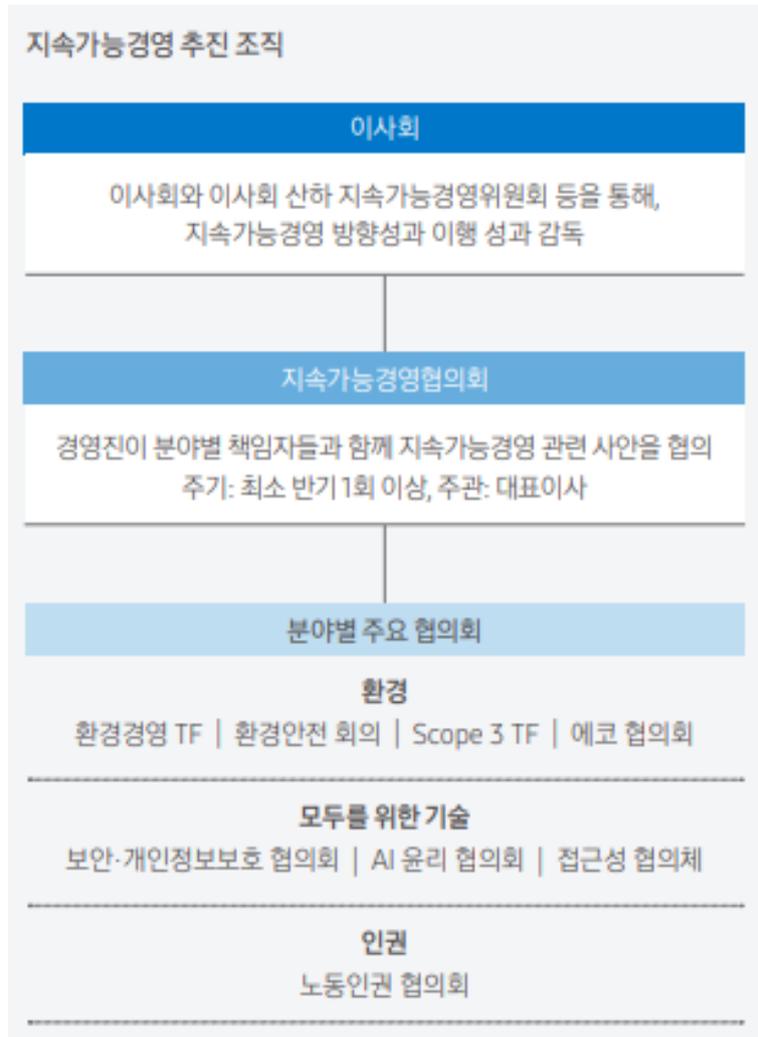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초일류기업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5 가지 핵심가치(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를 수립하였고, 핵심가치를 세부원칙과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하여 삼성전자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글로벌 행동규범(Global Code of Conduct) 을 제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조직문화에 5 가지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고 글로벌 행동규범을 모든 경영활동의 기준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제품 특성에 따라 DX(Device eXperience)와 DS(Device Solutions) 2 개 부문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DX 부문은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의료기기 등 완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DS 부문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 Foundry 사업, System LSI 사업으로 구성되어 DRAM, NAND Flash, 모바일 AP 등의 반도체 부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 년 말 기준 전 세계에 232 개의 생산거점, 판매거점, R&D 센터, 디자인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I.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2021 년 7 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거버넌스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주관하여 사업부장들과 각 분야의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관련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는 지속가능경영 컨트롤 타워로서 분야별 전담 부서·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모니터링, 대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관련 교육을 실시해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부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은 각 사업부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사업부별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부 내 전담 부서들의 실행을 지원합니다. 해외 주요 권역별 지속가능경영 조직에서는 권역별로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과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과제를 도출· 실행합니다.

2021년부터는 조직·임원의 성과 평가 체계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서 지속가능경영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과 평가 체계에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형 제품 개발, 준법, 제품 접근성 등 환경 및 사회부문의 지속가능경영 항목들을 조직 및 임원의 업무 특성에 맞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임원의 성과 평가, 보상 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III. 사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코스를 도입한 세탁기와 필터 개발]

삼성전자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와 캐나다의 해양 보호 비영리 연구기관 '오션와이즈(Ocean Wise)'와의 협업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저감 코스'를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2022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 IFA에서 처음 선보인 이 세탁 코스는 삼성만의 독자적인 버블워시 기술을 기반으로 세제를 빠르게 용해시켜 세탁물에 잘 스며들게 해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된 원인인 의류 간 마찰을 줄입니다.

이 기능으로 기존 세탁 코스 대비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국내 기준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간 해당 코스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10장 무게만큼의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이 감소합니다. 미세플라스틱저감 코스가 탑재된 세탁기는 유럽을 시작으로 국내에 이어 전체 글로벌 시장에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삼성전자는 파타고니아와의 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세탁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탁기 외부에 별도로 설치 가능한 '미세플라스틱저감 필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저감 필터는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최대 98%까지 걸러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배출을 줄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3에서 처음 공개된 이 필터는 2023년 국내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 터키, 호주, 뉴질랜드 시장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필터는 삼성전자의 세탁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세탁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

삼성전자는 2024 년 1 월 경기도, CJ 대한통운, E-순환거버넌스(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와 협력해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폐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홈페이지](#) 내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수거 신청을 하면 수거 파우치가 배송 되는데, 여기에 휴대폰을 넣어서 집 앞에 놓아두면 택배기사가 다시 찾아와 수거하는 방식이며, 원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것은 물론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 방문 택배를 활용하여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는 휴대폰을 개인정보 유출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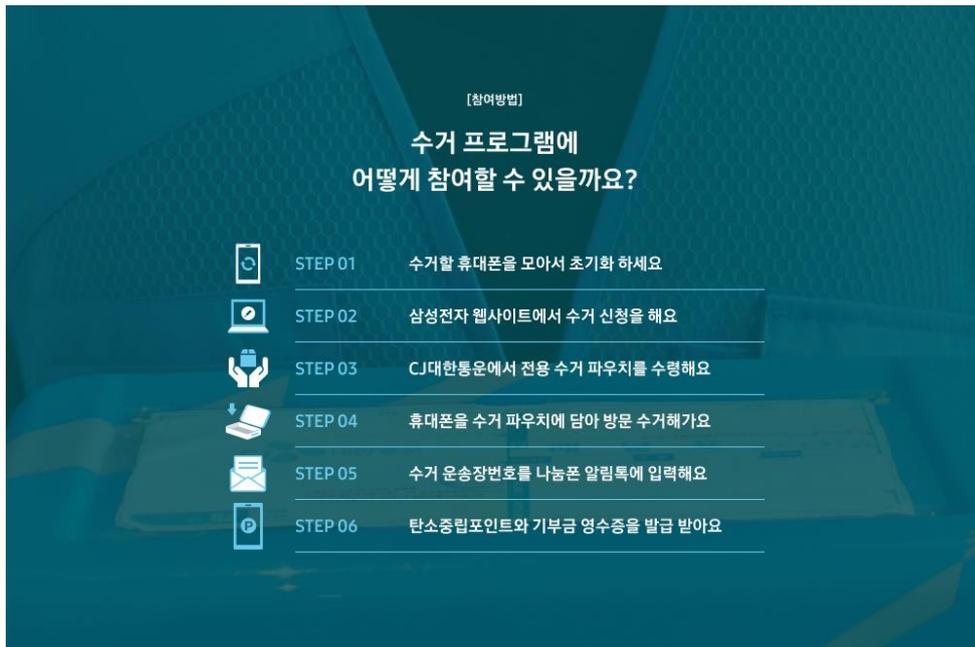


- 임직원 토론회 최우수 과제로 선정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은 지난 2022 년 말 삼성전자 임직원 대토론회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도 폐휴대폰 수거 체계가 있었으나 소비자가 직접 택배 배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에 착안해, 고객이 손쉽게 참여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작은 변화에서부터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 “직접 갈 필요 없어요” 손쉬운 참여 과정



IV.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SDGs	추진방향	주요활동
<p>4 QUALITY EDUCATION</p>	ICT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 솔브 포 투모로우,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삼성 주니어 SW 아카데미 · 삼성 희망디딤돌
<p>5 GENDER EQUALITY</p>	동등한 기회 보장이 경제 성장, 정치적 안정, 사회 변화의 열쇠라고 믿고, 전 세계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리더십 목표제 · 차세대 여성 리더 워크샵 · 글로벌 성평등 현황 자가 점검 · 성별 임금격차 관리
<p>7 AFFORDABLE AND CLEAN ENERGY</p>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지열 발전설비 설치, 재생에너지 공급계약, 재생전력 요금제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100 가입 · ACEC(Asia Clean Energy Coalition) 참여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p>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p>	모든 사람들이 첨단 기술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ICT 기기와 기술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규정을 준수하며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 · 삼성 녹스(Knox) 플랫폼을 통한 보안 강화

 <p>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p>	<p>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여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 제품 내구성 향상, 포장재 크기 축소, 신규 자원 채굴 저감과 제품의 사용 수명 연장 등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p> <p>또한, 협력회사의 사업 경쟁력 뿐 아니라 노동인권, 안전보건, 인재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포장재 확대 적용 · 재생 플라스틱 등 재활용 소재 확대 ·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확대 ·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참여 · RMI(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EPRM(European Partnership for Responsible Minerals) 가입 · ILO CLP(Child Labor Platform) 참여
 <p>15 LIFE ON LAND</p>	<p>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인근의 멸종 위기종을 파악하여 서식지 보존 활동을 추진하는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생태계 보존 활동 · 세탁기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코스 및 필터
 <p>17 PARTNERSHIPS FOR THE GOALS</p>	<p>교육·의료·고용·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현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 글로벌 골즈(Samsung Global Goals)앱 · 대한민국 정부 주관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 참여 · 삼성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미니쉬테크놀로지, 의료테크 첫 UNGC 가입...ESG 경영 시동



- 미니쉬테크놀로지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해 UNGC에 가입하여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임.
- 미니쉬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국내 의료테크 기업 중 처음으로 UNGC에 가입한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힘.

서울경제

2. 포스코인터내셔널, 국제기구와 손잡고 멸종위기종 저어새 보호 나서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AAFP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상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과 국내외 서식지 보호에 나섬.
-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국내외 사업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저어새 보전 활동과 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함.

경향신문

3. 바닥에 쪼그려 앉아 컵라면 먹는 소방관 없게...현대차가 수억 원짜리 버스 소방서에 기증한 이유



- 현대차그룹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열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회복 지원 버스’를 기증함.
-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더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소방관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싶다”고 전함.

한국일보

4. 새마을금고, 임원 선임 투명성 강화...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 제한



-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음.
-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임.

이데일리

5. "인천공항 인권은 OO 다"... 인권경영 확산 챌린지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공항 인권은 OO 다”의 빈칸을 자필로 채워 넣는 ‘인권경영 핵심가치 챌린지’를 진행함.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 내 인권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파이낸셜뉴스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9 월 23 일부터 10 월 15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4 개사입니다.

- 씨에스윈드
- 울산시설공단
- 케이인증원
- 넷제로아카데미주식회사

2. CoP/CoE 제출회원

9 월 23 일부터 10 월 15 일까지 총 5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CoE (총 4 개)

- 천안도시공사
- 한국교통안전공사
- 국제융복합협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CoP (총 1 개)

-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 2024 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미제출한 회원사는 8 월 6 일 자로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 년 12 월 31 일 이내에 제출 시 “Active” 상태로 회복됩니다. CoP 미제출 회원사는 2025 년 1 월 1 일 자로 “제명(Delisted)”되오니, 제출 기한 내에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이내에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 CoP/CoE 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UNGC 한국협회 가입 안내

2007년 9월에 설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다양한 심포지엄,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및 기업 지속가능성/ESG 관련 연구·조사, 정책 제안, 네트워킹과 대화의 장 마련, ESG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